

부활의 영광과 승리

말씀/ 고린도전서 15:35-58

요절/ 고린도전서 15:57,5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우리는 지난 주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과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배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변화된 제자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충만한 부활소망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스럽게 단언하며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몸이 부활한다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또 장차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부활때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부활 때의 승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배우고 이시간 부활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결국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화장된 시신은 재로 변해 버립니다. 교통사고나 전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지가 떨어져 나가 보기에 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활의 때에 어떻게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뚱뚱하거나 키가 작다는 이유로 자학하며 깊은 운명주의에 빠져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때에도 키가 작고 뚱뚱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정말로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쭈글쭈글하고 기력이 쇠하여 죽은 사람이 부활 후에도 지팡이를 잡고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젊어서 죽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먼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법칙의 씨앗을 예로 들어 부활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린 씨앗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첫째로 뿌린 씨를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탄생 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고 썩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씨를 뿌릴 때는 종자만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주십니다(37,38). 이렇게 따사로운 봄철에 나팔꽃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뿌려진 씨는 썩게 되고 어느정도 때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팔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씨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형체의 나팔꽃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다른 씨들도 보면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데 거기서 나온 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하찮은 씨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셨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는 장차 얼마나 영광스러운 형체를 주시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활의 때에는 개개인의 특성은 그대로 지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더 아름다운 새로운 형체를 주십니다.

셋째는 부활된 몸의 형체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변형된다는 것입니다(39-40a). 이것은 마치 땅에서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애벌레가 허물을 벗자마자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랑이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네다리를 주셨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몸은 이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40b-41절을 보십시오. 이땅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맨눈으로 보면 이 별이나 저별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하나도 같은 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 받게 될 영광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이방나라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광은 아파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 본국에서 직장생활을 감당하고, 가정생활을 감당하며, 힘든 학사회 전공을 감당하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님들은 달의 영광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며칠간 밤을 새가며 새벽양식 말씀을 준비하며 섬기신 정완목자님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침이면 센터에 출근해서 사랑방 청소부터해서 밤늦게까지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는 경동목동님도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모두 해나 달이나 별의 영광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해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부활 후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4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째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결국 썩습니다. 20대 싱싱하던 피부와 몸을 자랑하지만 그것도 한 때입니다. 자매님들은 썩어가는 육신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고자 비싼 화장품들

바르고 보톡스 주사를 맞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뺨살은 처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치아는 썩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해야 합니다. 이곳 저곳 저리고 썩습니다. 그래서 병원신세를 많이 지다가 결국 한 줌의 흙이 되어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굳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이슬처럼 투명하고 밝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미나 죽은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름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썩지도 죽지도 않는 20대처럼 항상 탱탱하면서도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의 우리의 몸은 욕됩니다. 욕되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죄악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학창 시절 운동주의 서시를 읊으며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 미투운동으로 유명한 정치인, 연출가, 배우들이 과거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이 흰하게 들어난다면 우리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목자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40대가 되면 수도승처럼 아주 정결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모습은 여전하고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불혹의 40대가 오히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보고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오늘처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봄날, 캠퍼스에서 현란한 옷차림을 한 자매님만 지나가도 눈의 초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와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회개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그런 고민을 안해도 됩니다. 그 날에는 더 이상 욕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셋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20대 청년들 중에는 자기 몸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년 안 지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30대까지만 해도 스피릿축구에 나와서 날라 다녔습니다. 사모님들이 아무리 애 좀 봐달라고 사정해도 목숨 걸고 축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40대가 되면 축구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차서 뛰기 힘든 것입니다. 20대 때 그렇게 날아다니던 디모데 목자님이 10분 뛰고 4발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부활시에는 스피릿 축구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훨훨 날아 다닐 것입니다. 그때는 디모데 목자님이 4발이 아니라 2발로 다시 헤드트릭을 할 것입니다.

넷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현재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에 매이고 공간의 한계에 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마22:30).

이상 4가지로 살펴보았듯이, 부활 때에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육의 몸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이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활의 몸을 다 표현 못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신령한 몸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세기 2:7절에 나오듯이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살아 움직이는 존재(living being)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은자를 살리시는 살려주는 영(a life-giving spirit)이 되십니다.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영이 되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는 다 아담에 속하여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속하여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변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썩을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화되고 거듭난 신령한 몸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요한 계시록 21,22장에 나타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남몰래 흘린 우리들의 눈물을 친히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소망은 신자의 참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secret’이 아니라 ‘mystery’입니다. 신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됩니다.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해처럼 빛난 얼굴에 신령한 몸으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소리가 온 천지를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뽀뽀라뽀, 뽀뽀뽀!" 데살로니가전서 4:16,17절은 이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은 믿는 신자들에게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마리아 목자님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기도방석을 양탄자와 같이 타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아비가일 목자님은 선우형제님과 1:1을 하다가 선우 형제님과 손을 잡고 올라 갈 것입니다. 해경목자님은 소화자매님과 손 꼭잡고 올라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목자님은 동역자들을 섬기기 위해

여호수아 3중세트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올라갈 것입니다. 어거스틴 목자님은 사랑방에서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하며 맛있는 커피로 동역자들을 섬기다가 올라갈 것입니다. 폴린목자님과 팀원들은 12시가 넘도록 팀공부를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 목자님은 해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섬기고 영적소원 있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각자 각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계시다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광중에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비로소 몸의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5:8절 말씀이 응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승리의 나팔소리와 함께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망권세는 인간위에서 철저히 왕노릇하고 인간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였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고 행복과 기쁨도 빼앗아 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죽음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56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사망은 우리 인간의 죄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율법으로 나타난 죄는 인간을 자학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억압받는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덧입는 그날에 사망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수 있습니다. 55절을 함께 외쳐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사망이 쏘는 독화살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철갑옷과 방패로 무장한 장수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덧입는 것은 철갑옷으로 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어떤 죽음의 요소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며 감격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난리를 떨지만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떩니다. 신자들을 많이 죽인 프랑스 왕 찰스 9세는 죽으면서 “나는 망하였구나. 분명히 그렇다”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임종시에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천국소망으로 가득찼던 D. L. Moody는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David Brainerd는 “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노라 영원한 세계는 생각만 해도 좋구나” 외쳤습니다. 사도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딤후

4:7)”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자들은 개선장군
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죽은자의 부활과 또 부활의 영광과 최후의 승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요? 사도바울은 부활 메
시지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다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
제들이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첫째,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확신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흔들림을 당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체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어디 있어?’라며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죄를 즐기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찰라에 불과한 이 땅의 쾌락을 기꺼이 부인하며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힘쓴다는 것은 20대 학생 때든, 30~40대 학사 때든, 60~70대 노인의 때든 한결같이 힘쓰는 것을 말합
니다. 또 복음역사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한결같은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은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바울은 세월이 흐르고 백발이
성성해 갔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헌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
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살
기로 세상 일에 수고를 합니다. 돈을 벌고자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수고를 하나요? 대학생들도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들은 지나고 보면 다 헛되어 수고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
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린 눈물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말 안듣는 양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섬겼던 수고
들, 불신자들로부터 받은 오해와 핍박 등 모든 것에 대해 영광의 상급으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세상의 수고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린 수고만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
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육체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는 부활신앙위에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와 복음에 드린 수고만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 복음역사와 세계선교에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